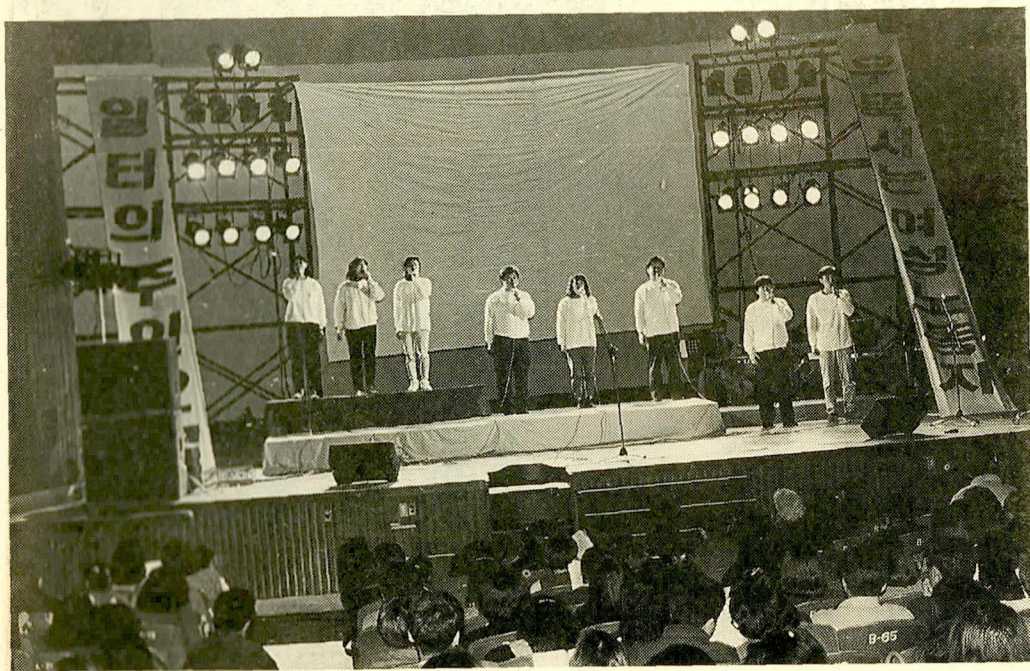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노동자 권리 확보에 매진” 결의

전국서 다채로운 행사, 여성고용안정책·성폭력특별법 제정 촉구



“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

여성의 고용 촉진과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소리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 여성단체는 3.8 세계 여성의 날 85주년 기념식을

갖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일터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여성 노동자’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 대회는 6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3.8여성노동자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기념대회를 치른

이후 처음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가 대회에 공식참여해 여성대회가 명실공히 전국노동자대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한국여성노동조합협의회의 이영순 대표는 대회를 통해 “오늘의 여성대회는 역사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여성이

자리매김되는 자리”라고 대회 의미를 밝히며 “생산현장에서, 학교에서, 은행에서, 사무실에서 우리들은 남녀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단병호 회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선배 여성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 없었으면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후 “여성노동자의 현안인 탁아·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노조원의 단결된 힘을 유도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정부의 올바른 여성정책 실현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한명숙 공동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약속했다”며 여성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과 인천에서도 7일 '9

화가 있었다.

3.8여성대회는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매년 갖게된 행사로 1908년 3월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 여성노동자들이 이날을 ‘여성노동자 투쟁의 날’로 정한 것에서 유래됐다.

3 여성한마당이, 8일에는 광주와 마산, 창원에서 각각 기념대